



2018

강림절 교육자료집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18 강림절 교육자료집

아이들과 왁자지껄 보낸 지난 성탄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강림절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어떻게 더 잘 나눌 수 있을지 매년 고민이 됩니다.

강림절이 되면 선생님도 아이들도 모두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방학도 하지 않은 바쁜 아이들과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두가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모두 함께 예수님 오심을 깊이 생각하고 기뻐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강림절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바램을 강림절영상에, 뮤지컬 대본에, 성탄 장식 만들기 활동에 담아봅니다. 이 자료를 사용하는 교회마다 즐겁고 따뜻한 강림절을 보내길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글 목록

01 가정과 함께 읽는 강림절 이야기 _ 노명재 목사 (은강교회)	04
02 강림절 혹은 성탄절을 위한 연극 _ 오충수 대표 (CS 뮤지컬 컴퍼니)	09
03 강림절 환경 장식 _ 김주애 전도사	20
04 강림절 말씀 달력 _ 김주애 전도사	30

자료 목록

교육국 홈페이지 www.kmcedu.or.kr 자료실

01 강림절 교육영상 _ 김동조 전도사 (아현중앙교회)	
02 성탄절을 위한 연극 딸림 자료 _ 가이드 영상, AR, MR, 악보, 효과음	
03 강림절 말씀 달력 도안	

01

가정과 함께 읽는 강림절 이야기

노명재 목사 (은강교회)

강림절 주일마다 가정으로 보내어 가정이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강림절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의 보호자 분들이 먼저 묵상하고 자녀들에게도 쉽게 풀어 설명해주세요. 잠들기 전, 함께 기도하며 강림절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강림절 이야기 1

하나님의 선물(GIFT)-Good news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10)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은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성탄이면 거리마다 반짝이는 아름다운 불빛을 떠올리고 아름다운 트리 밑에서 선물을 나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아름다운 밤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먼 길을 떠났던 요셉과 마리아는 갑작스런 진통에 설 곳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구한 장소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맞는 왕궁의 보드라운 침대가 아닌 베들레헴 구유 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자신의 가장 귀한 선물을 밤에 그 초라한 곳에서 펼쳐 보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큰 나라, 로마의 속국이었고,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배불러 있었으며, 백성들은 팍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시길 바랐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나라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힘을 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외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이런 땅에 오신 예수님은 ‘Good news’입니다. 정직한 자나, 신실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기는 기쁨으로 뛰놀았고, 동방박사들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났고, 목자들을 양떼를 버려두고 경배하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헤롯왕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 가만히 아기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 예수님은 누구의 환영에 부풀려지거나 누구의 반대에 속도를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약속하신 땅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죄악이 가득한 어둔 세상을 밝히려 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종종 아이 때문에 속상해하며 혼내기도 했지만 하루를 끝내고 잠든 아이를 바라보다 보면 오늘도 험한 세상에서 하루를 마친 아이가 대견하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오신지 이천년이 지난 오늘도 매일 뉴스에서는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강림절 첫 번째 주를 맞아 우리가 할일은 일 년 동안 묵혀둔 트리를 꺼내기 앞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먼저 기쁨으로 푸는 일입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성경은 Good news를 전해줍니다.

오늘의 기도

강림절 첫 번째 주에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고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해주세요. 온 세상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림절 이야기 2

하나님의 선물(GIFT)-Incarnation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누가복음 2:12)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강림절 두 번째 주를 맞습니다. 성육신(Incarnation)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성육신이 더욱 놀라운 점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베들레헴의 그 밤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아기예수님은 누울 자리가 필요하고 엄마의 품이 필요하고 아빠의 강한 팔이 필요한 가장 연약한 생명으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그 부모는 아기와 함께 애굽으로 피합니다. 이것이 만약 어느 신화라면 삼척동자인 그 아기는 나뭇가지를 들어 무지막지한 헤롯의 병사 수천 명을 물리치고도 남았어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애굽 땅으로 피해 살아 남았으며 다시 유대로 돌아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 받는 아이로 자라갑니다.

성경은 30세 이전의 이야기를 세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 삶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삶 그대로였기 때문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셔서 어른이 되기까지 평범한 세상의 고단한 삶을 경험하셨습니다. 인생을 경험하신 예수님 - 목마르시고 피곤하신 예수님, 기뻐하시고, 화내시고 불쌍한 마음이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을 따라 걸어 내려온 발자국임을 봅니다. 그 족보는 대단한 가문의 자랑거리를 담은 문서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비천하게 여겼던 기생 라합이, 이방여인 룻이 가족으로 족보에 기록됩니다. 성육신의 과정 속에 그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들도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갖는 부모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노라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계셨을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알아주시리라는 위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심, 그것도 세상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기적같이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두 번째 강림절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해야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실수투성이, 장난꾸러기 내 가족과 이웃부터 말입니다.

오늘의 기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처럼 아픈 것도 속상한 것도 다 경험하셔서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속상해합니다. 이 강림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것처럼 나와 다른 친구들을 멀리하지 않고 모두와 함께 행복한 성탄을 맞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림절 이야기 3

하나님의 선물(GIFT)-Friend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강림절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잉태소식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고 약혼을 조용히 취소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너는 배신당한 게 아니며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자기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알려줍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들려준 단어, 성탄절이 되면 되뇌이는 단어 “임마누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세상을 경험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 곳곳에서 마음 지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삭개오의 외로운 눈빛을 읽으시고 그의 집에 함께 머물러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멀리 하고 갈릴리로 도망간 제자들에게 나타나 아무런 말없이 물고기를 구워 주시며 제자들의 불편한 마음을 감싸주십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 유치원에 있는 아이가, 학교에 있는 아이가 누구랑 놀았는지 늘 궁금합니다. 시무룩한 날은 단짝 친구가 놀아주지 않은 날입니다. 새학년이 되어 새 반에 친한 친구가 없다고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곧 좋은 친구들이 생길거라고 아이를 달래봅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일은 친구를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태어나서는 처음 엄마와 눈을 맞추고, 아장아장 걸으면서는 동물원의 동물들에게 손을 흔들고, 유치원에 가면서부터는 점점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만납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나와 같은 것을 고민하는 이와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만남이 아이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 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강림절을 맞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됩니다. 다만 이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려는 결단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 그분께 응답하는 일입니다. ‘너희는 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라는 천사의 음성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목자의 순종과 같이 우리의 응답이 오늘도 “임마누엘”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강림절에 선물로 오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기쁠 때도 힘들거나 속상할 때도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위로와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의 손을 꼭 잡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림절 이야기 4

하나님의 선물(GIFT)-Truth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성탄절이 오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분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친구되신 이 성탄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강림절 마지막 주를 맞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자 약속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다고 성경은 이야기 합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길, 진리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라서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예측해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짧은 경험을 더듬어 우리 아이들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려주는 길은 대부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거나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거나 이런 좁은 식견으로 길을 안내하는 우리 또한 길을 걸어가는 서툰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부모로써 내일을 살아갈 아이에게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두렵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갈 미래는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강림절을 맞으며 감사하는 이유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신 까닭입니다.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는 그 시간과 공간까지도 아이와 함께 길 되시며 친구 되어 주실 분이 오신 까닭입니다.

이 진리와 함께 사는 일은 거창하지 않고 평범한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아빠는 몰라도 돼’라고 차갑게 말하는 딸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다른 집과 비교하는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내 약점을 들춰내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친구를 사랑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림절을 맞아 하나님의 선물,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먼저는 부모된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길을 잘 걷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친구들을 사랑하는 일, 짜증이 나는 상황에도 기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탄을 맞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2

뮤지컬 “대단한 단추들”

오충수 대표 (CS 뮤지컬 컴퍼니)

교사와 어린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뮤지컬입니다.

교육국 자료실에 있는 가이드 영상, AR, MR, 악보, 효과음 등의 딸림 자료를 함께 활용하세요.

“대단한 단추들”

등장인물

- 한 강 수. 남.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청년
- 송아단추. 단추의 우두머리. 제일 꼭대기에 있는 단체
- 가을비단추. 갈비뼈의 ‘갈비’에서 이름을 따온 단추
- 망치단추. 명치 가까이에 사는 단추
- 배꼽단추. 배꼽 가까이에 사는 단추
- 부끄단추. 아래쪽에 위치하여 바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단추
- 꼭지단추. 맨 아래에 달린 단추
- 꾸리단추. 옆구리에 붙어 있는 여벌단추

때는 2018년. 무대는 강수의 집. 여기저기 늘어놓은 옷가지와 킥라면 용기, 음료수 병 등으로 어수선하다.
 강수 한 쪽에서 잠을 자고 있다. 침대나 소파 등으로 표현해도 되고 바닥에 이불로 표현해도 무관하다.
 강수의 핸드폰이 울린다. 강수 이불을 뒤집어쓴다. 핸드폰이 끊긴다. 잠시 후 다시 울린다.
 강수 보지 않고 핸드폰을 손으로 찾아 전화를 받는다.

강수 : (잠에 취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사이) 전데요. (벌떡 일어나서 핸드폰을 두 손으로 잡고 정중하게)
 안녕하십니까? 한강수입니다. 아니요. 저는 매일 일찍 일어납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 핸드폰을 던져 놓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쓴다. 핸드폰이 다시 울린다.
 강수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쥐고 전화를 받는다.

강수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강수입니다! 하... 뭐야 아침부터. 번호는 왜이래. 핸드폰 바꿨어? (사이)
 안됐어. 어. 약 올릴라고 전화했냐? 전화하지마라 짜증나니까.

강수 핸드폰을 놓는다. 그리고는 옆에 놓여있던 스케줄 표를 본다. 스케줄 표를 내려놓고 일어난다.
 어제 밤에 그대로 잤는지 강수의 옷은 어제 본 면접차림이다. 강수 셔츠만 벗어 놓고 씻으러 간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강수 어깨에 수건을 한 장 걸치고 나온다.

강수 : 누구세요?

아무 대답이 없다. 강수 문을 연다. 문 앞에 선물상자가 놓여 있다.
강수 상자를 들고 집으로 들어온다.

강수 : 택배 올게 없는데. 뭐지? 보낸 사람이 없네?

강수 상자를 열어본다. 흰색 셔츠가 담겨 있다. 강수 잠시 생각한다. 핸드폰을 들어 전화한다.

강수 : (통명스럽게) 어 엄마. 먹었어. 엄마 나한테 뭐 보냈어? 안 보냈지? 알았어. (사이) 아직 결과 안 나왔어. 한 두 개도 아니고. (사이) 저번 거는 안됐다니까. 몇 번을 말해. 교회? 몰라. 아 알았어. 나갈거야. 취업한 다음에 갈 거라고. 끊어. (전화 끊는다. 깊은 한숨을 쉰다.)

강수 셔츠를 던져 놓고 로션을 바른다. 이때 단추들 제 각각 소리를 내며 들어온다.
망치와 가을비는 서로 몸이 붙어 있고 배꼽과 꼭지와 꾸리는 셋이 엉켜 있다. (한명이 업혀 있던지 안고 있던지 무언가 불편해 보이는 모습으로 표현). 승아와 부끄는 서로 얼굴을 맞대며 있다.

망치 : 아! 아! 야 좀 비켜 줘야~~!

가을 : 너나 옆으로 가. 여기 내 자리잖아!

배꼽 : 숨을 못 쉬겠어!!

꼭지 : 너 때문에 그래!

꾸리 : 어이가 없네~~!

부끄 : 나 부끄러워!

승아 : (나지막하게) 입 열지 말지?

강수 로션을 바르다가 단추들을 멍하니 쳐다 본다. 단추들 계속 다룬다.

강수 : 뭐야? 누구세요?

단추들 강수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다룬다.

강수 : 여기 언제 들어왔.. 아니 어떻게 들어왔어요?

단추들 여전히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다룬다.

강수 : 저기요!!

단추들 동작을 멈추고 강수를 본다.

강수 : 당신들 뭐냐고.

단추들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다시 다룬다.

강수 : 그만!!!

정적이 흐른다.

승아 : (웅크려져있는 흰 셔츠를 가리키며) 저 것 좀 똑 바로 하지?

*강수 영문도 모른 채 셔츠를 집어 든다. 동시에 단추들 서로 떨어진다.
강수 다시 셔츠를 떨어뜨린다. 단추들 서로 다시 붙는다.*

승아 : 똑바로 내려놓으라고!

강수 셔츠를 다시 집어 들어 가지런히 놓는다. 단추들 다시 떨어지며 자신들의 매무새를 고친다.

승아 : 하... 힘들었어.

강수 : 저기... 누구세요?

승아 : 승아

강수 : 네?

승아 : 승아라고. 못 알아들어?

강수 : 근데 왜 반말을...

승아 : 너도 해.

강수 : (한숨 쉬며) 하... 그만 나가주세요. 저 출근준비 해야 돼서.

승아 : 거짓말!

가을 : 백수가?

망치 : 출근을?

부끄 : 어머 부끄러워.

배꼽 : 면접은?

꼭지 : 잘 봤어?

꾸리 : 떨어 졌어

부끄 : 어머 부끄러워.

강수 : 뭐야 당신들.

승아 : 우리? 각자 위치로.

단추들 차례대로 선다.

승아 : 우리가 누구냐고? 다들 잘 알 텐데. 언제나 너희 곁에 있잖아. 내가 바로 승아!
 가을 : 가을비!
 망치 : 망치!
 배꼽 : 배꼽!
 부끄 : 부끄!
 꼭지 : 꼭지!
 꾸리 : 꾸리!
 승아 : 이름하여
 모두 : 단! 추!

Music 1. 단추 이야기 – 단추들

단추들

나는 짱!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사랑하면 누구나 시인이 되는 법
 상처는 사랑의 나이테를 만들고 사랑이 시작되면 비밀이 쫓! 많아진다
 단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야
 옷이 낡으면 단추의 상처도 무늬가 되지 나는 외톨이야 나는 외톨이야
 하느님의 옷에도 단추가 있을까 정말 있을까

강수 : 그러니까 니들이 단추라고? (셔츠를 집으려하며) 여기 달려있는 거?
 단추들 : (집지 못하게 하며) 워어~~!
 강수 : (한 숨 쉬며) 하... 그래 니들이 단추라고 치자. 그럼 뭐 지퍼는 안 왔냐?
 승아 : 갠 바빠. 이미 탑 스타야.
 강수 : 그래? 그럼 짹짹이는.
 가을 : 아퍼. 병원에 있어.
 망치 : 하도 붙였다 떼다 고생이 많아.
 강수 : 그럼 똑딱이도?
 배꼽 : 갠 찾기 어려워
 꼭지 : 신비주의!
 부끄 : 어머 부끄러워.
 강수 : (한 숨 쉬며) 그래... 근데 여긴 왜 왔어?
 승아 : 내가 얘기해 주지. 난 승아단추야. 단추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자신의 목을 가리키며) 여기! 이게 바로 나. 다시 말해 단추 서열 1위!

가을 : 웃기고 있네. 나는 가을비단추. 사람 갈비뼈의 '갈비'에서 따온 이름이야. 바로 두 번째 위치한 단추야. 여기서 잠깐! 두 번째여서 내가 서열 2위라고? 아니 틀렸어. 실질적인 1위는 나야. 왜냐! 여긴 잘 안 채워요. 별로 쓸모가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단추 채울 때 여기부터 채우는 사람 있어? 잘 생각해봐. 없어요. 대부분이 나부터 채운다니까? 그리고 가을비. 벌써 이름 봐~ 낭만적이잖아~

망치 : 낭만은 무슨 그냥 갈비지. 나는 망치단추. 명치 가까이에 있다 해서 망치란 이름을 쓰지. (가을비를 가리키며) 애 아래 자리 잡고는 있는데 오히려 나부터 채우는 사람들도 많아. 그리고 심장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나!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아주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거든? 애네들이랑은 레벨이 달라요~

가을 : 그건 겉 멋! 추워주겠는데 겨울에도 멋 부리느라 (승아를 가리키며) 애랑 나 열고 니 채우고 다니는 거 아냐~

망치 : 아니! 그건 스타일 이야. 한 사람의 유일한 스타~일.

가을 : 그게 겉 멋 이라니까?!

망치 : 스타~일

가을 : 겉 멋!

망치 : 스타~~~일!

가을 : 겉! 멋!

강수 : 잠깐! 왜 남의 집 와서 싸우고 난리야? 그리고 난 (목을 가리키며) 여기 채우는데. 면접 보러갈 때 여기까지 다 채우고 벅타이 매는데?

승아 : 바로 그거야! 그래야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지. 그렇지?

강수 : 그렇지.

승아 : 그래서 우리가 온 거야. 널 단정하고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수 : 나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아

단추들 동시에 널 부러져 있는 옷가지들을 가리킨다.

강수 : 미안. 내가 경솔했어.

승아 : 그래서 단정하고 깔끔해지려면 이 서열 1위인 승아단추를 잘 여미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가을 : 내가 1위라니까?!

망치 : 내가 1위거든?!

승아 : 나라고!

가을 : 나야!

망치 : 나!

강수 : 그만 싸우라고!

배꼽 : 그래! 그만 좀 싸워라. 진짜는 여기 있는데 지들끼리 서로 1위래.

강수 : 넌 누군데?

배꼽 : 난 배꼽단추. 배꼽 가까이에 있어서 그렇게 불러.

강수 : 근데 너가 왜 서열 1위야?

배꼽 : 애도 뭘 모르네. 잘 들어봐. (승아와 가을비를 가리키며) 애. 애. 잘 안 잠그죠? 특별한 일 빼고는. 너도 그렇잖아. 면접 끝나고 나와서 뭐해? 넥타이 풀고 (승아와 가리키며) 애부터 풀잖아. 그리고 조금 덥다~ 싶으면 (가을비와 망치를 가리키며) 애 풀고 애 까지 풀 수도 있어. 근데 난! 못 풀지~ 나 풀면 이상한 사람 되요~ 즉! 이 배꼽단추는 잘 여미고 있어야 사람이 단정해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서열 1위.

승아 : 넌 조용히 해라. 지저분하니까.

강수 : 지저분 한건 또 뭐야?

승아 : 잘 생각해 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 제육볶음을 젓가락으로 하나 콧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어떻게 돼? 떨어져. 어디로? (배꼽단추) 애~ 그다음 어떻게 해? (행동을 하며) 지르잡아야지. 얼마나 지저분해. 그리고 짬뽕을 먹을 땐 또 어때. 후룩 후룩 후루룩. 꿀꺽. 크~ 했는데 국물이 튀었어. 어디에? (가을비와 망치를 가리키며) 애 네~ 그러니까 나 빼고 다 지저분한거야.

배꼽 : 야. 그럴 때 한 번 더 씻는 거야. 지저분한 게 아니라 너무 깨끗해서 탈이라니까? 그리고 막말로 넌 없어도 되는 게 널 안 잠겨야 카라가 더 예쁘게 펼쳐져요~ 패션도 모르면서 1위라고 떠들고 있어?!

승아 : 조기 입으면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말이 많네? 어?!

배꼽 : 차이나카라엔 니가 있지도 않거든?!

강수 : 잠깐 잠깐! 아 왜 또 싸우는 거야? 아니 1위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부끄와 꼭지, 꾸리쪽을 바라보며) 너넨 왜 가만히 있니?

꼭지 : 우린

꾸리 : 안보여

부끄 : 부끄러워~

강수 : 너희는 누군데?

부끄 : 난 부끄단추.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에 있어. 넌 셔츠를 입은 다음에 어떻게 해?

강수 : 바지를 입지

부끄 : 그 다음은?

강수 : 셔츠를 바지 안에 잘 정리해서 넣지

부끄 : 어머 부끄러워~~

강수 : (한 참을 생각한다.) 그래서 넌 부끄단추야? 그래서? 그럼 넌?

꼭지 : 난 꼭지 단추. 제일 아래 있어. (부끄단추) 애랑 늘 같이 있어. 바지 안에.

부끄 : 부끄러워~

꼭지 : 그래 맞아. 부끄러워. 서로 늘 같이 있고 같은 고통을 받고 있어. 넌 모를 거야.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만약 너가 속이 안 좋아서 그걸 참고 참다가 이성을 잃는 순간이면! (2번 음악 시작)

뒤로 뽑은 가스지만 그 가스가 아래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공격하면 세상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서러움을 느끼게 돼. 그리고 그 고통이 없어지기도 전에 절정에 다른 폭발이 터진다면!

Music 2. 내게 강 같은 평화 – 단추들

단추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꼭지 : 그러니까 앞으로는 바지 내리고 배출 좀 해줘. 부탁할게

강수 : 어 그래 미안하다.

꾸리 : 미안하면 나 좀 써줄래?

강수 : 넌 누군데?

꾸리 : 난 꾸리단추. 제일 마지막 단추.

강수 : 너가 마지막 단추 아니야?

꾸리 : 뭐야. 지금 나 무시해? (옆구리를 짚으며) 여기 하나 더 있잖아. 그래. 난 옆구리에 붙어 있는 여벌 단추다. 내가 세상 밖에 얼굴을 내밀기는 쉽지 않아. 애네들이 없어져야 비로소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나기 때문이지. 하지만 난 괜찮아. 누군가를 위해 대신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온종일 숨어서 그 외로움을 혼자 감당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어. 따스한 햇살을 받을 그 날을 기다리며....

강수 : 그래 잘 기다리고. 그럼 (꼭지와 꾸리에게) 너희는 1위는 아닌거네?

꾸리 : 당연히

꼭지 : 1위야

부끄 : 부끄러워

승아 : 야 시끄러워!

가을 :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말이 많네?

망치 : (옆으로 밀치며) 절로 가지지? 여긴 1위인 내 자리야

가을 : 그럼 내가 거기 있어야겠네?

승아 : 비키시지? 내 자리거든?

배꼽 : 내 자리거든!

가을 : 나야

망치 : 나라고

승아 : 나라니까?

배꼽 : 나거든?!

꾸리,꼭지,부끄 : 우리거든?!

강수 : (화를 내며) 야!! 그만 안 뒤? 왜 자꾸 싸우는 거야? 1위가 그렇게 중요해? 1위면 어땠고 2위면 어때?
그리고 애부터 채우든 애부터 채우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네 하나하나가 모두 필요한 거잖아.
근데 틈나면 서로 나만 잘났다고 하며 싸우고 무시하고. 그럼 되겠어?!! (사이. 화를 가라앉히며)
사이좋게 좀 지내라. 맨날 한 셔츠에 붙어 있으면서 싸우면 되겠니? 너희들이 서로 사이가 좋고
행복해야 그래야 입는 사람도 기분 좋을거 아냐. 안 그래?

꾸리 : (당당하게) 잘 아네

강수 : 뭐?

꾸리 : (당당하게)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너.

강수 : 무슨 소리야?

꾸리 : 취업 때문에 어떻게 행동했니?

강수 : 어??

꾸리 : 착실하게 잘 나가던 교회도 발을 딱 끊고 안 나갔지? 취업하면 간다고? 진짜?

강수 : (당황하며) 그걸... 어떻게.....

꾸리 : 엄마한테 짜증내고 친구랑 싸우고. 너가 우리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

꼭지 :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도 그렇구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다 엉망!!!

부끄 : 단추를 채우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 하지만 너에게는 순서가 있잖아!!

배꼽 : 그런데 너의 순서는 틀렸어!! 취업보단 틀어진 모두와 화해가 먼저지

망치 : 아무렴! 화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지!

가을 :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자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자면!!

송아 : (사이) 준비를 해야 돼

Music 3. 주님 만날 준비 – 부끄단추

단추들

세상의 부와 명예 세상의 유혹들 떨쳐버리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곳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행복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찌니 주님은 우리의 삶이야

꾸리 : 네가 방금 우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해봐

강수 : 나도 지키지 못하는 걸 너희한테 얘기 했구나

송아 :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켜보자.

부끄,꼭지,꾸리 : (외치듯) 지켜보자!!!

강수 : 그래 맞아. 잊고 있었어.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

가을 : 덩동댕!
강수 : 엄마에게 짜증내면 안됐어!
망치 : 정답!
강수 : 취업을 핑계로 교회에 가지 않았어!
배꼽 : 빙고!
강수 : 결국 난! 엉망이었어!!
단추들 : 브라보!
강수 :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으며) 주여~~~~~! (할렐루야 음악 큐)
단추들 : 그걸 아는 녀석이 그래?!!
강수 : 미안
꾸리 : 기분이 어때?
강수 : 아주 좋아. 뭔가... 바르게 맞춰지는 느낌이야.
부끄 : 어머 할렐루야다 애
단추들 : 아멘!
강수 :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 깨닫게 해줘서. 니들 좀 멋있다?
단추들 : 인정!
승아 : (셔츠를 건내며) 그럼 오늘도 힘차게 도전해 봐야지?
강수 : 그래. 꼭 합격해야지.

강수 승아에게 셔츠를 받아 입기 시작한다.

승아 : 단추 잘 채우고. 나부터 채우는 거 알지?
가을 : 나부터라니까
망치 : 나부터거든?
배꼽 : 내가 먼저라니까?
강수 : 아니.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과 기도가 먼저야
단추들 : 오~~~ 그걸 아는 녀석이 그랬~~어?!!
강수 : 내일은 너. 모레는 너. 회사 합격하면 이거 평생 입어야 되거든? 내가 매일 매일 순서 바뀌서 채울게.
약속!
단추들 : 약속!
승아 : 자! 선물.

승아 편지봉투 하나를 건넨다.

강수 : 이게 뭔데?

승아 : 열어봐

강수 봉투를 열어 확인한다. 글이 써져 있는 종이를 발견한다. 읽어나간다.

강수 :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야 이 말씀 나도 알아!

강수 고개를 들어 단추들을 본다. 단추들 이미 사라지고 없다. 강수 주위를 둘러보며 의아해 한다.
종이를 접는다. 글귀를 하나 더 발견한다.

강수 : 그걸 아는 녀석이 그래?

강수 환하게 미소를 짓는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선다.
문이 열리며 성탄캐롤소리 점점 커지며..

-끝-

03

강림절 장식

김주애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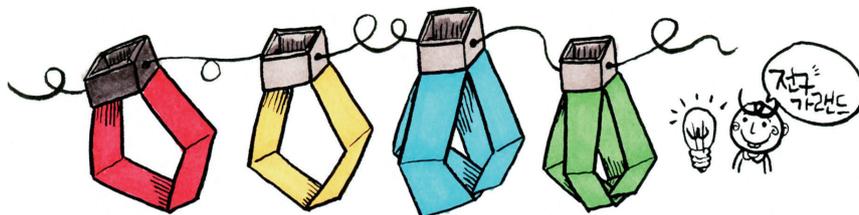
해마다 강림절에는 예배실을 장식하며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작년에 보관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내어 불과 리본을 달고 전구를 켜면 성탄절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 마음이 설렙니다. 해마다 반복되어도 늘 기쁘고 특별합니다. 올해에도 아름다운 손길로 꾸며진 곳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강림절을 보내세요.

1. 가랜드로 장식해요!

강림절이 시작되었음을 확실히 알릴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바로 가랜드를 활용한 장식입니다. 한 번 공을 들여 좋은 재료로 만들어 보관을 잘하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 올해 한번쯤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가랜드는 천장과 창문, 문 등 많은 곳에 걸어두는 정도로 분위기를 낼 수 있으며, 거는 방법도 다양하게 바꾸어 장식할 수 있습니다. 설치장소에 다른 장식적인 요소가 많은 경우에는 깔끔하고 간단한 것으로 만들기를 권합니다. 여러 해 사용 가능하도록 하려면 펠트지나 천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사용 후에는 접히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잘 정리하여 보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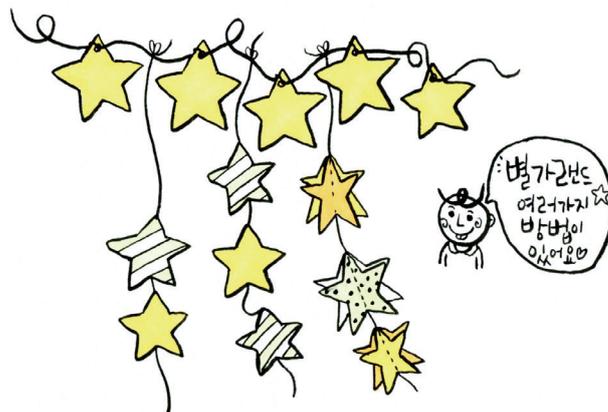
① 전구 가랜드

크리스마스 전구 모양을 색지로 만들어 엮어서 걸어보세요. 색지를 길게 잘라 접고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이면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두께감이 있고 코팅되어 있는 종이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② 별 가랜드

별을 여러 개 오려서 윗부분을 리본으로 엮기, 가운데 리본을 두고 같은 크기의 별을 서로 맞붙여 만들기, 같



은 크기의 별을 3개 만들어 반으로 접어 서로 붙이고 위쪽에 리본을 묶어 달아 내리는 방법 등 별 모양 하나로도 만들 수 있는 가랜드는 다양합니다. 반짝이거나 특별한 효과를 내는 가랜드를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종이나 펠트지, 시트지 등으로 주재료를 다양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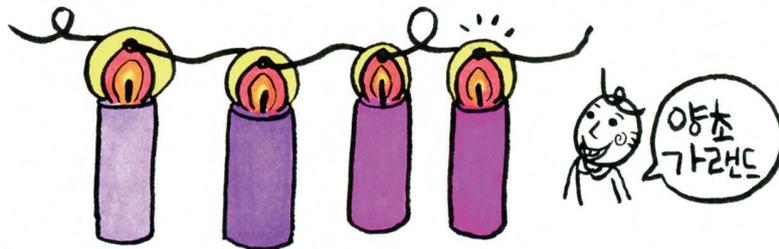
③ 홀리 리프(holy leaf) 가랜드

성탄절 장식에 빠지지 않는 호랑가시나무의 뾰족뾰족한 모양의 잎과 붉은색 열매를 이용하여 가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록색 계통의 색지를 준비하여 잎사귀를 여러 개 오려둡니다. 오려둔 잎을 3개를 모아 붙이고 그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 열매(3개씩)를 달아 리본에 엮어 만듭니다. 약간 광택감이 있는 종이를 사용하면 더 볼륨감 있는 가랜드를 만들 수 있고, 천장 등 높은 곳에 달아 장식할 때는 잎사귀나 열매를 크게 만듭니다.



③ 양초 가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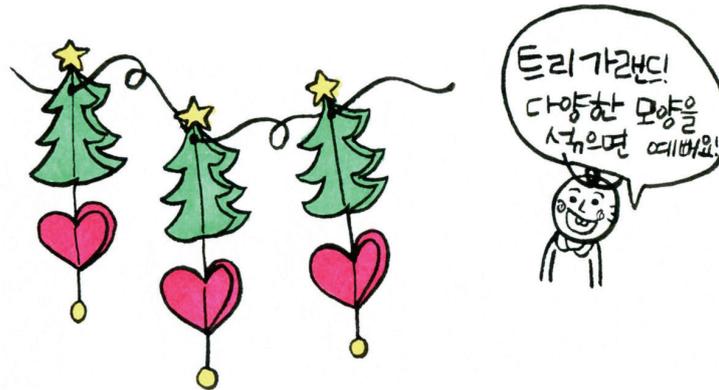
보라색 초를 만들어 엮어 만든다. 강림절을 상징하는 보라색과 초를 장식함으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초의 몸통 부분을 둥근 기둥이나 삼각기둥으로 만들어 입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⑤ 트리 가랜드

성탄절이 다가오면 먼저 성탄트리를 떠올리게 되는데 어떤 컬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지므로

컬러를 잘 계획하고 구성합니다. 강림절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제작할 경우, 보라, 연분홍, 연보라 등 같은 계통의 다양한 색으로 구성하면 감각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초록색 계통의 가랜드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중간 중간 빨간색 열매를 넣어주어 따뜻하고 전통적인 느낌을 더합니다. 파스텔 계통이나 알록달록한 원색 계통의 가랜드는 발랄하고 밝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 장식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컬러 구성에 신경을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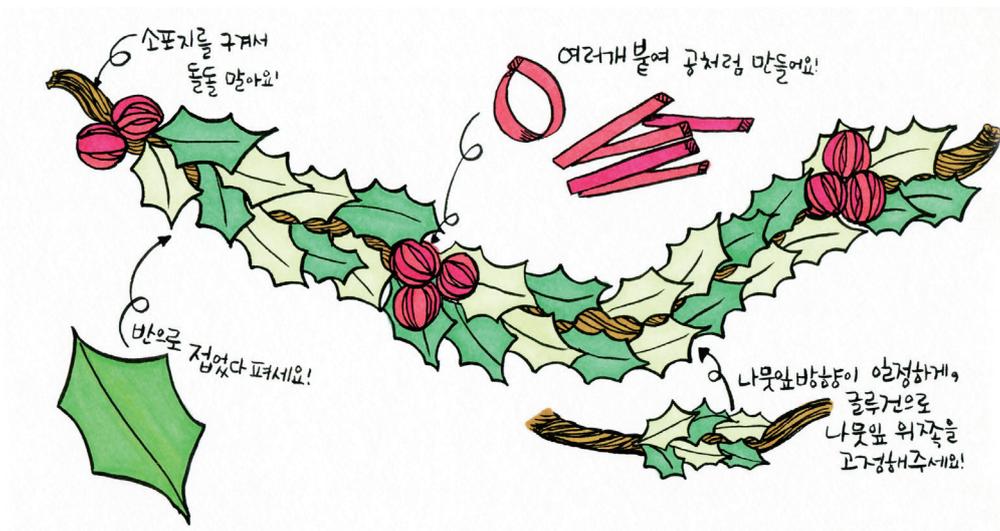
⑥ 크리스마스 볼 가랜드

크리스마스 장식 볼은 트리장식 외에도 가랜드로 만들어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랜드와 달리 컬러와 무늬를 입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늬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산만하게 보일 수 있으니 장식 볼의 도안이나 주요 색과 통일성을 가진 리본이나 띠로 묶어 만듭니다.



2. 홀리 리프 넝쿨

호랑가시나무 넝쿨을 크게 제작하여 창문과 출입문, 계단 등을 장식해 봅니다. 크게 만들어 장식하면 성탄절이 다가왔음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렴한 재료들로 쉽게 만들 수 있으니 꼭 만들어 보기를 제안합니다.



① 준비물

초록색이나 연두색 색지(roll로 구입, 나뭇잎 수에 맞게), 다홍색이나 빨간색 색지(열매 수에 맞게), 소포지, 잎사귀 도안, 가위, 양면테이프, 글루건

② 만들어요

- **잎사귀 만들기** : 초록색 색지에 도안을 대고 그려 오립니다. 나뭇잎이 밖으로 말려들어가도록 하여 반으로 접습니다. 접고 나면 나뭇잎 양쪽 끝이 밖으로 말려들어가는 모양이 됩니다.
- **열매 만들기** : 주황색과 빨간색 색지를 길게 잘라 양면테이프를 위쪽을 붙여가며 공 모양으로 여러 개의 열매를 만듭니다.
- **넝쿨줄기 만들기** : 소포지를 꼬아 줄기처럼 만듭니다.
- **가랜드 만들기** : 오려둔 잎사귀들을 꼬아놓은 소포지에 지그재그로 붙여가며 넝쿨을 완성하고, 잎사귀들 중간에 공처럼 만든 열매를 붙여 꾸밉니다.
- 완성된 가랜드를 창문, 출입문, 계단 등 계획된 곳에 단단하게 걸어줍니다.

3. 성탄 글자 장식

색지로 '성탄절'이란 글자를 만들고 예배실에 달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요즘은 현수막으로 대체하는 교회가 많아지면서 만들어 붙이는 글자보다 완성도도 높고 세련된 디자인의 글자들이 성탄절을 알립니다. 하지만 직접 글자를 만들며 가졌던 예배실을 장식하는 설레임과 즐거움을 잃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마음을 담아 아름답고 특별한 글자를 만들어 성탄을 준비하면 어떨까요?

1) 꽃레터링



① 준비물

박스지 또는 우드락, 조화(절기에 맞는 것), 글루건, 가위, 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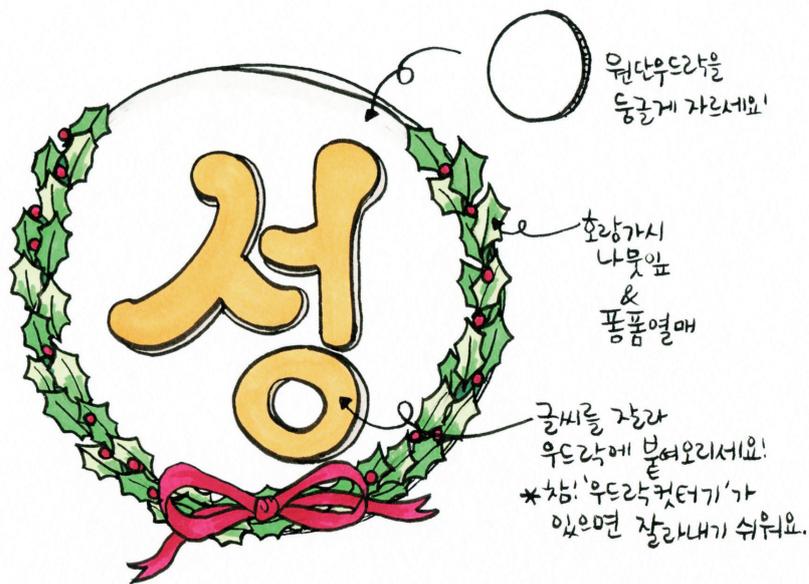
② 만들어요

- 글자판 만들기 : 원하는 사이즈의 글자를 출력하여 박스지에 대고 그려 오릅니다.
- 성탄절 글자에 사용할 열매, 잎사귀 등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 준비합니다. 조화는 아래 꼭지 부분을 바짝 자르지 말고, 반 정도만 잘라 꽃이 풀어지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 조화와 잎사귀들을 글자판에 붙여 완성합니다.

③ 기억해요

- 조화로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글자판에 원하는 컬러를 칠하고 포인트로 조화를 붙여 만든다. 박스지 대신 우드락을 이용하면 색을 칠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조화 뿐 아니라 스펅글, 반짝이, 모형진주, 반짝이 스프레이, 락커, 폼폼이, 데코테이프, 냅킨 등을 이용하여 글자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2) 리스 레터링



① 준비물

박스지 또는 우드락, 초록색 계통 3가지색 펠트지, 빨간색 폼폼이(열매), 리본, 글자용 펠트지, 글루건, 가위, 우드락 커터기

② 만들어요

- **글자판 만들기** : 박스지를 둥글게 잘라 하얀색 컬러로 색칠한다. 우드락으로 하는 경우 흰색을 구입하여 둥글게 자르면 됩니다.
- **잎사귀로 장식하기** : 다양한 초록색 계통의 펠트지로 호랑가시나무 잎사귀 모양으로 잘라 원형 글자판 테두리에 붙이고 빨간색 폼폼이로 호랑가시나무 열매를 표현하여 붙입니다.
- 붉은색 리본은 만들어 아래쪽에 붙입니다.
- 펠트지로 글자를 만들어 글자판 안쪽에 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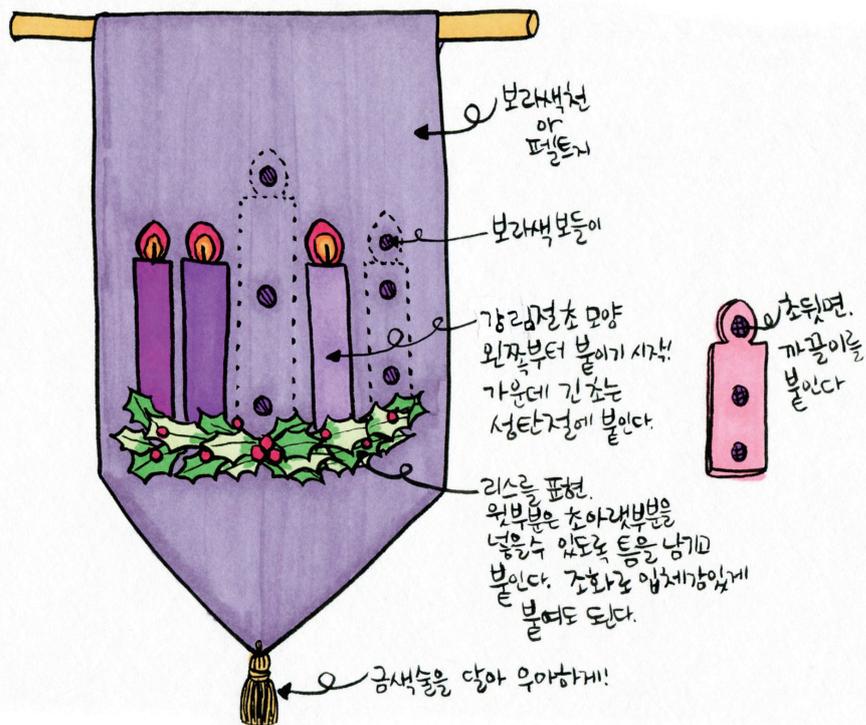
③ 기억해요

- 글자판을 박스지로 만들어 컬러링 할 때는 여러 겹 덧발라 흰색으로 채색하고, 그 위에 다른 컬러링을 해야 박스지에 인쇄되어 있는 이미지가 가려집니다.
- 호랑가시나무 잎사귀 리스나 글자 테두리에 금색 구슬줄을 붙여주면 화려함을 더합니다.
- 글자는 조금 두께감이 있는 것을 사용하면 입체감이 있어 보입니다.
- 호랑가시나무 열매와 함께 솔방울도 같이 붙여주어도 좋다. 붉은 색 열매가 있어야 리스가 더 생동감 있어 보이고 예쁩니다.
- 사용 후 잘 보관하면 여러 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강림절 배너

절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어린이 예배실에 배너 장식을 제안합니다. 절기에 따른 배너는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 컬러와 이미지로 절기를 더 잘 기억하게 돕습니다. 강림절 기간 동안 초를 하나씩 더해 가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강림절의 의미를 더 깊이 새겨보세요.

1) 강림절 배너 만들기



① 준비물

배너용 보라색 펠트지, 양초용 펠트지(진보라, 보라, 흰, 연보라, 연분홍 색), 불꽃 부분 펠트지(빨강, 주황, 노랑, 갈색), 호랑가시나무 잎사귀 펠트지(진초록, 초록, 연두, 올리브색), 열매용 펠트지(폼폼이), 보라색 벨크로테이프(보들이&까슬이), 금색 수술, 글루건, 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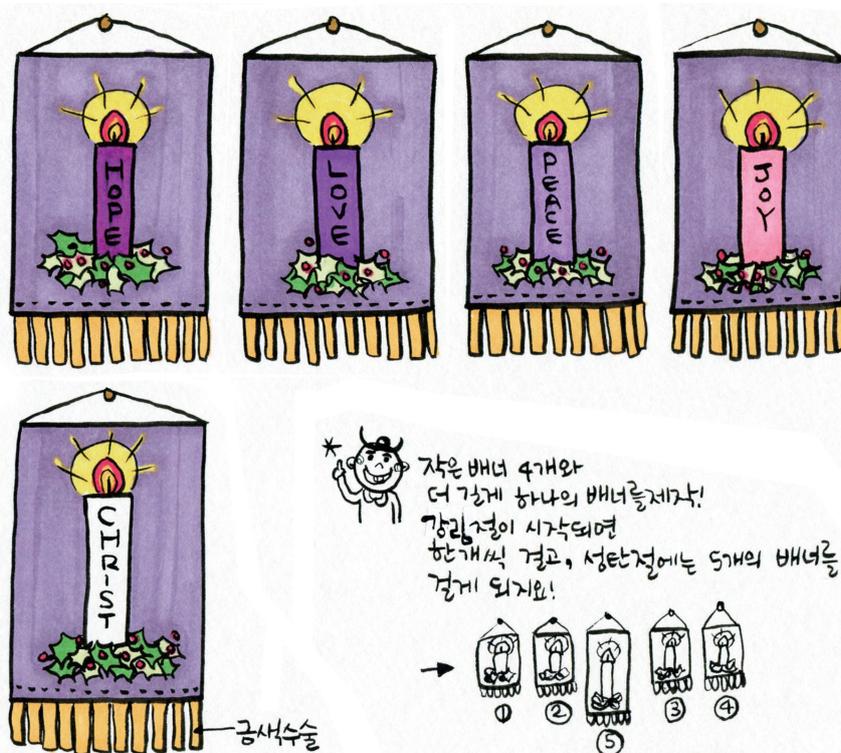
② 만들어요

- **배너 만들기** : 보라색 천이나 펠트지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르고, 아랫부분은 뽀족하게 자른다. 아래쪽 뽀족한 부분에 금색으로 만든 술을 붙입니다.
- **배너 하단 리스 만들기** : 여러 색의 펠트지로 잎사귀를 만들어 붙이고 열매도 붙입니다.
- **초 만들기** : 양초는 배너 왼쪽부터 진보라-보라-흰-연보라-연분홍색으로 배치하며 가운데 흰색 양초는 다른 것보다 길게 제작합니다. 초들은 보라색 보드리와 까슬이를 활용하여 양초의 탈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배너 게시하기** : 강림절 첫 주부터 강대상에 배너를 설치하고, 매주 초를 순서대로 하나씩 붙여가며 배너를 완성합니다. 초는 왼쪽부터 붙여가며 가운데 흰색 초는 성탄절에 붙입니다.

③ 기억해요

- 배너의 바탕인 보라색과 초의 보라색이 구분되도록 만듭니다. 배너 바탕을 펠트지가 아닌 보라색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초에 흰색이나 금색테두리를 둘러줄 수 있습니다.
- 배너는 게시할 강대상 크기에 맞게 제작하도록 하며, 특별히 정해진 사이즈는 없습니다.
- 리스의 잎사귀를 붙일 때에는 위쪽의 초의 탈착을 고려한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2) 미니 배너 만들기



① 준비물

배너용 펠트지(보라색), 양초용 펠트지(진보라, 보라, 흰, 연보라, 연분홍색), 불꽃용 펠트지(빨강, 주황, 노랑, 갈색), 인사귀용 펠트지(진초록, 초록, 연두, 올리브색), 열매용 펠트지(폼폼이), 글자용 펠트지(또는 금색 밧줄), 금색 수술, 글루건, 가위

② 만들어요

- **배너 바탕 만들기** : 보라색 천이나 펠트지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르고, 아랫부분에 금색수술을 붙입니다. 흰색 초가 붙을 배너는 다른 것보다 크게 만듭니다. 배너 아랫부분에 금색 천을 붙이고 자르거나 반짝이 펠트지를 붙여주어 고급스럽게 완성합니다.
- **초 만들기** : 진보라, 보라, 흰, 연보라, 연분홍색으로 제작하며 흰색 양초는 다른 것보다 더 크게 제작합니다. 초에 붙을 글자는 와이어 공예를 활용하여 금색 밧줄로 꼬아 붙이거나, 펠트지로 예쁘게 잘라 붙입니다.
- **배너 하단 리스 만들기** : 초를 먼저 붙이고 초의 아래쪽에 작은 리스를 만들어 붙입니다. 호랑가시나무의 인사귀와 열매를 만들어 붙입니다.
- **배너 게시하기** : 강림절 시작 전 배너 자리를 미리 확보하여 두고, 한 주에 배너 하나씩 추가하며 게시합니다. 게시 장소의 가운데는 강림절 4주 후, 성탄절에 흰색 초 배너를 게시합니다.

04

강림절 말씀 달력

김주애 전도사

강림절 기간 동안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리스를 만들어가는 활동입니다. 강림절 첫 번째 주일(12월 2일)부터 해당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진행합니다. 어린이들이 가정의 보호자와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절의 의미를 배워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① 홀리 리프 리스 달력을,
유치부 어린이들에게는 ② 예수님 탄생 이야기 달력을 추천합니다.

1. 홀리 리프 리스 달력



① 준비물

달력 판(두께감이 있는 A3용지에 출력합니다), 앞사귀(평일용), 초(주일용), 리본, 양면테이프, 성경책

② 만들어요

• 강림절 첫 주(12월 2일)에 어린이들에게 달력 판을 나누어주고, 매일 그 날에 해당되는 말씀을 묵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운데 초들은 4번의 주일과 성탄절(가운데 흰색 초)에 하나씩 붙여가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총

분히 설명하고 첫 번째 양초를 함께 붙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고 교사는 말씀을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양초에 각각 적혀 있는 희망, 사랑, 평화, 기쁨의 의미를 담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도 설명합니다.

- 보라색 양초를 붙인 리스와 함께 매일 붙여나갈 홀리 리프(주일마다 6장씩 혹은 한꺼번에 25장)를 개인별로 포장하여 나누어줍니다.
- 가정에서도 시간을 정해 말씀을 읽고 번호 순서대로 잎사귀를 붙입니다. 저학년 어린이 가정에는 활용법을 가정통신문으로 전달해주세요.

③ 기억해요

- 아래 강림절 달력 매일묵상말씀 표를 참고하여 묵상을 진행합니다.
- 온 가족이 함께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말씀묵상을 격려하기 위해 가정의 보호자분들은 맛있는 캔디나 초콜릿을 상으로 준비하여 묵상 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 달력 판은 두께감이 있는 용지에 인쇄하여 구겨짐이 덜하도록 하고, 나누어 주어야 할 잎사귀는 주마다 혹은 한꺼번에 나누는 방법을 교회마다 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리스달력이 완성되면 예쁘게 사진을 찍어 인증하고, 완성한 어린이들에게 교회학교에서 작은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강림절 달력 매일묵상말씀 (12월2일-25일) •

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일 눅 2:10	3일 렘 33:15	4일 시 25:5	5일 살전 3:13	6일 눅 21:27	7일 말 3:1	8일 눅 3:4
9일 눅 2:12	10일 습 3:17	11일 빌 4:4	12일 눅 3:16	13일 미 5:2	14일 사 9:6	15일 딤후 2:14
16일 마 1:23	17일 사 52:7	18일 히 1:8	19일 요 1:14	20일 막 1:11	21일 벧후 3:9	22일 살전 5:23
23일 요 14:6	24일 막 13:37	25일 롬 5:1				

2. 예수님 탄생 이야기 달력

① 준비물

달력판(두께감이 있는 A4 또는 A3용지에 인쇄하여 사용합니다), 종이인형들(구유 안의 아기예수, 마리아, 요셉 등), 양면테이프, 성경책

② 활용방법

- 강림절 첫 번째 주(12월 2일)에 달력판과 인형그림판, 활용방법을 적은 가정통신문을 준비하여 어린이들에게 나눠줍니다.
- 예수님 탄생 이야기달력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에 등장하는 종이인형들을 붙여가며 완성하는 것입니다.
- 매일 가정에서 보호자분들이 해당일의 말씀을 찾아 읽고 자녀에게 설명해주고, 자녀는 종이인형을 하나씩 골라 붙이며 진행합니다.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이 원하는 대로 붙일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시오.

③ 기억해요

- 33면 강림절 달력 매일묵상말씀 표를 참고하여 묵상을 진행합니다.
- 이야기달력이 완성되면 예쁘게 사진을 찍어 인증하고, 완성한 어린이들에게 교회학교에서 작은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